



6. <보기>에 착안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빨갛고 먹음직한 사과로 백설공주를 유혹할 거야.”  
- 붉게 반짝이는 사과의 빛깔은 위험한 유혹의 상징으로 동화에 등장합니다.

㉡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 위의 사과를 정확히 맞힐 거예요.”  
- 빌헬름 텔의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 “그래, 바로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게 된 거야!”  
-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인류 역사에 남을 큰 발견을 했습니다.

㉣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 스피노자는 자신만의 철학을 갈고 닦기 위해 고집스럽게 이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 “세잔의 사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 세잔은 사과를 실제 사과처럼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과의 본질을 그리려 했습니다.

- ① ㉠: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함을 안다.
- ② ㉡: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를 신뢰하는 자세를 가진다.
- ③ ㉢: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살피는 태도를 기른다.
- ④ ㉣: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에 매진한다.
- ⑤ ㉤: 사람을 외모보다는 내면으로 판단한다.

7. 학교 급식소 게시판에 ‘음식을 남기지 말자.’라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1. 완곡하게 권유할 것
2. 대조와 유추를 사용할 것

- ① 여러 자재들이 어우러져 멋진 집이 만들어지듯이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훌륭한 요리를 남겨서 되겠습니까?
- ② 후손들에게 오염된 환경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살아 숨을 쉬는 자연 환경을 만듭시다.
- ③ 퍼즐에서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도 재료 하나하나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음식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 ④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흘린 땀을 떠올리며 먹을 때는 건강을, 버릴 때는 환경을 생각합시다.
- ⑤ 오염된 물은 물고기를 병들게 하고, 맑은 물은 물고기를 건강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환경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남긴 음식물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지겠습니까?

8. 다음은 ‘문화 예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 통계

(가) 문화 예술 교육의 걸림돌

\* 문화체육관광부(2008)

(나) 전국 문화 시설 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 수	102	15	11	9	12	16	5	67	37	25	34	38	30	40	49	22

\* 통계청(2008)

II. 인터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고 싶지만 영화 말고는 비싸서 자주 볼 수도 없고, 기회가 있어도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방에 살고 있어 접할 기회도 부족합니다.”

- ○○군 거주 정△△ 씨 -

III. 관련 자료

21세기는 창조와 문화의 시대로, 과거와는 다른 교육 시스템과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 지식보다는 상상력과 감성적 기능이 중요하다. 따라서 디자인, 표현, 공감, 감성, 배려, 이해, 놀이 등의 요소가 있는 문화 예술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 신문 보도 자료의 일부 -

- ① I-(가)를 활용하여, 문화 예술 교육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한다.
- ② I-(나)를 활용하여, 지역에 따라 문화 시설에 편차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③ I-(가)와 II를 활용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문화 예술 단체를 육성할 것을 촉구한다.
- ④ I-(나)와 II를 활용하여, 지방 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 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⑤ II와 III을 활용하여, 관련 지식과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폭포(瀑布) 김수영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A] 곧은 소리는 곧은

└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나) 승천(昇天) 이수익

내 목소리가  
저 물소리의 벽을 깨고 나아가  
하늘로 힘껏 솟구쳐 올라야만 한다.

소리로써 마침내 소리를 이기려고  
가인(歌人)은  
심산유곡 폭포수 아래에서 날마다  
목청에 핏물 어리도록 발성을 연습하지만,

열 길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쉽게 그의 목소리를 덮쳐  
계곡을 가득 물소리 하나로만 채워버린다.

그래도 그는 날이면 날마다  
산에 올라  
제 목소리가 물소리를 뛰어넘기를 수없이 기도(企圖)하지만,

한 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 폭포는  
준엄한 스승처럼 곧추 앉아  
수직의 말씀만 내리실 뿐이다.

끝내  
절망의 유복자를 안고 하산(下山)한 그가  
발길 닿는 대로 정처없이 마을과 마을을 흘러 다니면서  
소리의 승천(昇天)을 이루지 못한 제 한(恨)을 토해냈을 때,

그 핏빛 소리에 취한 사람들이  
그를 일러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소리꾼이라 하더라.

(다) 고의(古意) 정약용

한강물은 쉼 없이 흐르고	涑水流不息
삼각산은 끝 간 데 없이 높아라.	三角高無極
강산이 변해도	河山有遷變
간사한 무리는 없어지질 않네.	朋淫破無日
한 사람이 중상모략을 하면	一夫作射工
여러 입들이 차례로 전해	衆喙遞傳驛
치우친 말을 믿게끔 하니	詖邪既得志
정직한 이는 어디에 발붙일까.	正直安所宅
봉황은 깃털이 약해	孤鸞羽毛弱
가시나무에 깃들이지 못하나니	未堪受枳棘
아쉬운 맘 한 줄기 바람 타고서	聊乘一帆風
멀리멀리 서울을 떠나고 싶네.	杳杳辭京國
떠도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放浪非敢慕
머물러 미련을 두어도 소용없기 때문.	濡滯諒無益
대궐 문은 포악한 자가 지키고 있으니	虎豹守天闈
무슨 수로 나의 충정 아뢰리.	何繇達表臆
옛 성인 훌륭한 말씀에	古人有至訓
향원*은 덕의 적이라 했지.	鄉愿德之賊

\* 향원: 겉으로는 그럴 듯해 못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나 속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킴.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삶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다)는 현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 ③ (나), (다)는 자아실현을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14. (나)에 대한 감상을 친구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에는 '가인'의 내적 욕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
- ② 2연과 3연에는 '가인'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드러나 있어.
- ③ 4연과 5연에는 '가인'의 피나는 수련이 한계에 부딪혔음이 나타나 있어.
- ④ 6연에는 '가인'이 소리꾼이 되기 위해 고행을 계속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
- ⑤ 7연에는 '가인'의 한이 담긴 소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타나 있어.

15.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떨어진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밤’을 배경으로 하여 폭포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③ (가)는 ‘번개’와 ‘물방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절망의 유복자’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핏빛 소리’라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동경과 예찬의 대상이다.
- ② ㉠과 ㉡ 모두 단절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③ ㉠과 ㉡ 모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대상이다.
- ④ ㉠과 달리 ㉡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극복 대상이다.
- ⑤ ㉡과 달리 ㉠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17.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의 ‘소리’와 [B]의 ‘말’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A]는 ‘고독함’이, [B]는 ‘아쉬움’이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다.
- ④ [A]의 ‘곧은 소리’는 [B]의 ‘여러 입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⑤ [A]의 ‘부른다’와 [B]의 ‘차례로 전해’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18. <보기>의 ㉠ ~ ㉤ 중,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 ㉡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 ㉢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미운 것을 밉다고 하며, 착함을 권장하고 ㉣ 악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뜻이 서 있지 않고, 학문이 익지 않으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 군주를 잘 보좌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자연 선택 개념은 많은 경우 진화보다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연관되어 인용된다. 주둥치\*가 발광체를 갖게 된 것이 자연 선택 때문이라면, 자연 선택은 진화적 변화에 의해 그 발광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체의 진화적 잠재력에 대한 풍부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그들이 오늘날 보통 관찰되거나 화석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연 선택이 주로 하는 일은 생명체가 지닌, 현재 최적의 상태로 발달되어 있는 형질들에서 ㉠ 이탈하는 것들을 추려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들 중 어떤 종에서 평균 날개 길이가 20센티미터라면 19센티미터나 21센티미터의 날개를 가진 개체들은 다소 불리할 것이다. 그 개체들은 성체가 될 때까지 생존할 확률도 적고 그 후에도 낮은 번식률과 생존율을 보일 것이다. 야생에서 일어나는 자연 선택을 다룬 한 ㉡ 전형적인 연구가 그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1899년 영국의 생물학자 허먼 캐리 범퍼스가 폭풍우에 죽은 참새들의 날개 길이를 재 보았다. 그 결과 폭풍 때 죽은 참새들에서 평균보다 ㉢ 현저하게 크거나 작은 날개를 지닌 개체들의 비율이 ㉣ 전체 참새 개체군에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날개 길이나 인슐린 생산, 피부색 등의 형질은 중간 정도의 발달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안정화 선택 혹은 ‘최적화’라고 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치며 평균값에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평균값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여겨진다.

심지어 약한 방향성 선택도 일어나면 대개 ㉤ 시정된다. 자연 선택이 간간히 일어나는 불리한 돌연변이나, 환경 조건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개체에 의해 ㉥ 유입되는 지역적으로 부적응적인 유전자들을 숙아 내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적응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다윈이 진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안한 자연 선택 과정이, 오늘날에는 주로 진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주둥치: 난류성 물고기로 몸은 타원형에 가까운 나뭇잎 모양이며 옆으로 납작함. 북서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분포함.

19. 위 글을 읽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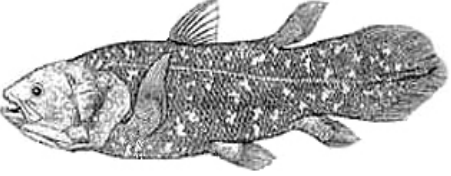
- ① 과거 새들의 날개는 현재보다 작았다.
- ② 진화의 속도가 수백 년 전보다 매우 느려졌다.
- ③ 주둥치의 발광체는 점점 더 밝은 빛을 낼 것이다.
- ④ 인슐린을 평균보다 많이 생산하는 개체가 유리할 것이다.
- ⑤ 자연 선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20. 위 글과 <보기>를 참고로 하여 '실러캔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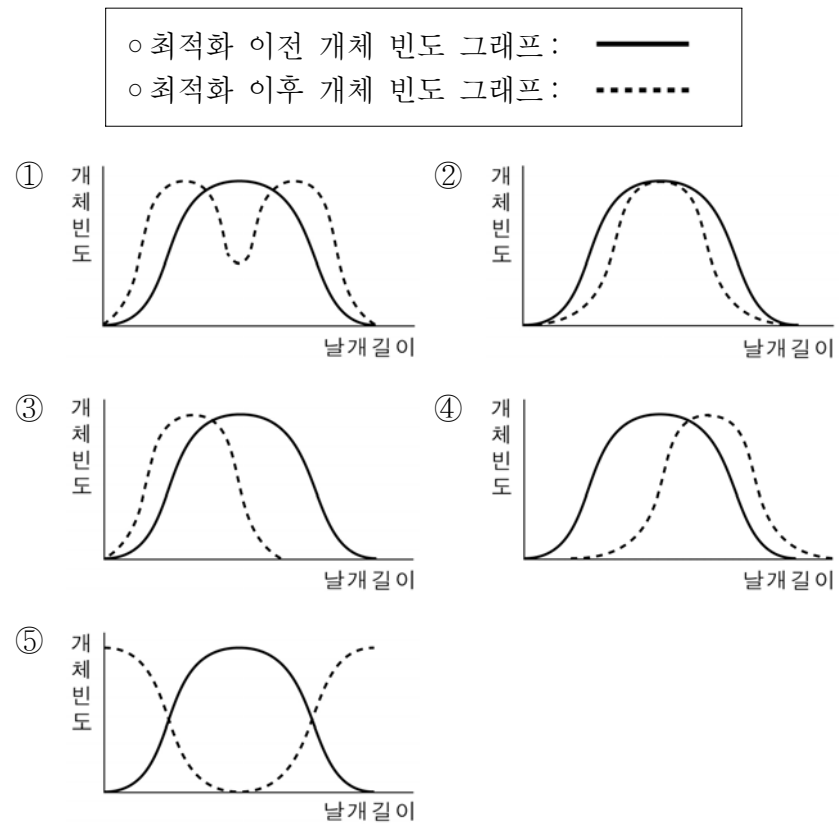
실러캔스는 고대에서부터 번식한 살아있는 화석이다. 백악기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38년 남아프리카 동해안의 앞바다에서 우연히 고깃배의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실러캔스 개체가 발견되었다.

고생물학자들은 실러캔스가 심해에 적응하기 전에는 다리처럼 생긴 앞 지느러미와 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레가 있어 강이나 호수에서 육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양서류로 진화하여 육상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다시 바다로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① 백악기 이후 안정화 선택을 지속해 왔다.
- ② 오랫동안 진화 잠재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 ③ 현재 심해에 최적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④ 양서류보다 개체의 형질이 우수하지 못하다.
- ⑤ 양서류가 된 물고기와 진화의 방향이 달랐다.

21. '최적화'가 지속된 이후 ㉠의 개체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 ㉠~㉣의 사전적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떨어져 나온.
- ② ㉡: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 ③ ㉢: 뚜렷이 드러나 있게.
- ④ ㉣: 바르고 가지런하다.
- ⑤ ㉤: 물, 재화, 사상, 병원균 따위가 들어오게 되는.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 해 무오년에 오랑캐 추장이 요양으로 쳐들어 와 연달아 몇 개의 진지를 함락하고, 수많은 장졸들을 죽였다. 천자는 크게 화가 나서 온 나라의 모든 병사를 동원하여 이를 토벌케 하였다. 소주 사람인 오세영이 교유격의 부총(副摠)으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예전에 여유문에게 들어서 최척이 재주가 있고 용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척을 서기로 삼아 데려가려고 하였다. 최척이 거절을 할 수 없어 행장을 꾸려 가려고 할 때, 옥영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여 말했다.

“저는 타고난 운수가 좋지 않아 일찍이 난리를 만나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낭군을 만나, ㉠ 끊어진 거문고 줄을 다시 잇고 나뉜 거울을 다시 동글게 하듯이, 이미 끊어진 인연을 다시 맺었습니다. 게다가 늙어서 의탁할 아들까지 얻어 함께 24년 동안 즐겁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몸이 먼저 갑자기 죽어 낭군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에 늙어 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듯 이별하게 되었으니, 이제 수만 리나 떨어진 요양으로 가시면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컨대, 불미스러운 제가 이별하는 자리에서 자결하여 ㉡ 한편으로는 낭군께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끊고, 다른 한편으로는 밤낮으로 겪게 될 제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아아! 이제 낭군을 영영 이별하게 되었으니, 낭군께서는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스스로 잘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영은 말을 마치고 칼을 뽑아서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최척이 칼을 빼앗으며 달래어 말했다.

“하찮은 오랑캐 추장이 감히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기에 제왕의 군대가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해 가는 것이니, ㉢ 형세는 계란을 깨는 것과 같소. 멀리 이역(異域)에 종군한다고 해서 어찌 반드시 다 죽겠소? 삼가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마시오. 내가 공을 이루고 돌아오면 중당에 술상을 차려 놓고 맞이하여 축하나 해주시오. 하물며 몽선이 건강하여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되도록 많이 먹고,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지 마시오.”

마침내 최척을 포함한 명나라 군사는 길을 떠나 요양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오랑캐 땅으로 수백 리 걸어 들어가 조선 군사와 나란히 우미새에 진을 쳤다. 그러나 주장(主將)이 적을 가볍게 여기고 싸우다가 전군이 크게 패하였다. 오랑캐들은 명나라 병사는 부류(部類)를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다 죽이되, 조선 병사는 유혹하거나 위협하기만 하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 이에 교유격이 패졸 10여 명을 거느리고 조선 진영으로 들어가 조선옷을 구걸하자, 조선의 원수(元帥)인 강홍립은 남은 옷을 지급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그런데 종사관 이민환이 이러한 사실이 오랑캐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다시 옷을 뺏고 중국 사람들을 붙잡아 적진에 보내버렸다. ㉣ 최척은 본래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주하고 어지러운 순간을 틈타 명나라 사람을 세워놓은 줄에서 홀로 빠져 나와 죽음을 면하였다. 강홍립이 투항하자 최척은 조선의 장졸들과 함께 오랑캐 추장의 딸에 감금되었다.

이때 몽석도 남원에서 무예를 익히다가 출전하여 원수의 진중에 있었다. 오랑캐가 항복한 군졸들을 나누어 놓을 때 최척은 몽석과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나, 최척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 몽석은 최척이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조선말을 할 줄 아는 명나라 병사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조선 사람 행세를 한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최척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 최척도 오랑캐가 실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을 이리저리 돌리며 전라도에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충청도에 산다고 말하기도 했다. 몽석은 마음속으로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최척과 몽석은 정의(情誼)가 매우 두터워지고 서로 동병상련하는 처지인지라, 조금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최척은 마침내 자기가 평생 동안 겪어왔던 내력을 조금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다. 몽석은 최척의 말을 듣고 놀라서 낮빛이 변하더니, 슬픈 듯 기쁜 듯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잃어버린 아이는 나이가 몇 살이며, 신체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척이 말했다.

“갑오년 10월에 아이를 낳았으며, 정유년 8월에 잃어버렸다네. 그리고 등 위에 붉은 사마귀가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의 손바닥 같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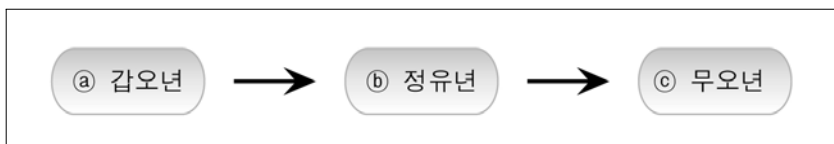
몽석이 말을 못하고 놀라 쓰러졌다가 옷통을 벗어 등을 보이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최척은 비로소 몽석이 자기 아들임을 확인한 후 부친과 장모님의 생사 여부를 물었으며,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희비가 교체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였다.

- 조위한, 「최척전」 -

23. 위 글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 최척, 옥영, 몽석이 함께 있었다.
- ② b에 최척은 아들 몽석과 헤어졌다.
- ③ b에 최척은 요양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 ④ c에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오랑캐와 전쟁을 했다.
- ⑤ c에 최척은 부친과 장모의 생사 여부를 알게 되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옥영이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② ㉡: 옥영이 최척을 원망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최척이 앞날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감추고 있다.
- ④ ㉣: 최척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최척이 몽석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하고 있다.

25. 위 글에 나타난 인물의 상황을 한자성어로 나타낼 때 적절한 것은?

- ① 옥영은 최척을 다시 만난 것을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② 최척은 옥영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쓰고 있다.
- ③ 오랑캐들은 명나라 군사를 무조건 죽이는 경거망동(輕舉妄動)을 하고 있다.
- ④ 교유격은 살아남기 위해서 장수의 위엄을 버리고 구밀복검(口蜜腹劍)하고 있다.
- ⑤ 최척과 몽석은 부자지간임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척전」은 ‘기우록(奇遇錄)’이라고도 한다. ‘기이한 만남의 기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최척 일가의 상봉은 참으로 요행이며 기적 같은 일에 속한다. 당대의 일반적 현실은 작품 속에 그려진 현실보다 훨씬 암담하고 비극적이었다. 이 작품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전란을 배경으로 한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 등이 대개 환상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거나 영웅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면서 민족적 자존심의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는 것과 달리 당대의 대다수 인간들이 겪었던 전쟁의 피해, 당시의 전쟁이 이들 인간의 운명에 끼친 영향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 ① 최척, 옥영, 몽석은 당대 민중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대변하고 있다.
- ② 포로로 잡힌 최척과 몽석의 삶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옥영이 전란으로 최척과 두 번이나 헤어지게 된 것에서 당대의 현실이 암담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최척이 재주와 용맹을 인정받아 출전한 것은 주인공을 영웅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⑤ 최척과 몽석이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 것은 ‘기우록’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닐봉지에서 꺼내 흔들어 주면 어느새 따뜻해지는 손난로(분말형).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철의 변화 즉, 녹이다. 철과 산소와 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수산화제이철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원리다. 이와 같은 반응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쇠못이나 철판이 녹이 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만졌을 때 뜨겁다고 느낀 적은 없다. 그렇다면 손난로 속의 녹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은 쇠못이나 철판이 녹이 스 때도 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쇠못이나 철판에 녹이 스 때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손난로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철가루를 사용하여 녹이 스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빠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손난로 봉지에는 철가루, 활성탄, 톱밥, 버미큘라이트, 식염수가 들어 있다. 이 봉지는 부직포에 폴리에틸렌을 코팅한 것으로 표면에는 작은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다. 우리가 손난로를 쓰는데 있어 이러한 봉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난로는 용도에 따라 일정 시간, 일정 온도에서 지속적인 열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철의 변화를 좌우하는 산소 공급량을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손난로 봉지다.

손난로를 비닐에서 꺼내면 활성탄의 작용으로 산소가 봉지 구멍에 빨려 들어가 철가루의 산화를 촉진시킨다. 산소와 만난 철은 산화가 시작되고, 구멍의 크기나 수, 배치 등으로 산소의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다. 손난로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알갱이를 꺼내 공기 중에 그대로 방치하면 철가루의 산화가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 온도가 90℃ 가까이 된다. 이처럼 산소의 양이 충분하면 녹이 한꺼번에 생겨버린다. 그래서 녹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작은 구멍이 뚫린 봉지인 것이다.

손난로 봉지에 나 있는 구멍만으로 손난로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 손난로에 열이 나는 것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는 산화를 촉진시키는 식염수 공급 방법도 관건이다. 손난로 안의 식염수는 ㉠ 톱밥과 버미큘라이트에 함유되어 있다. 버미큘라이트는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많은 광물이다. 톱밥 표면에도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다. 식염수는 버미큘라이트와 톱밥의 구멍에 각각 스며들어 있다. 식염수의 공급량을 조절하려고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력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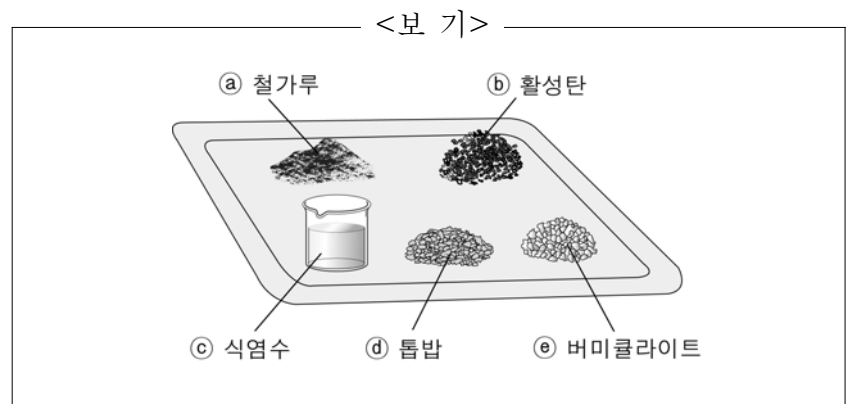
손난로를 비닐봉지에서 꺼낸 직후에는 먼저 톱밥에서 식염수가 스며나와 철가루의 산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톱밥의 식염수가 거의 다 흘러나왔을 무렵, 이번에는 버미큘라이트에서 식염수가 흘러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식염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 보수제 : 수분을 보호하는 물질.

2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소 공급량이 많을수록 녹이 스는 속도가 빨라진다.
- ② 부직포에 뚫린 구멍 수는 발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손난로의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 ④ 손난로를 포장한 비닐봉지는 철가루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철판에 녹이 스 때 열을 느낄 수 없는 것은 화학반응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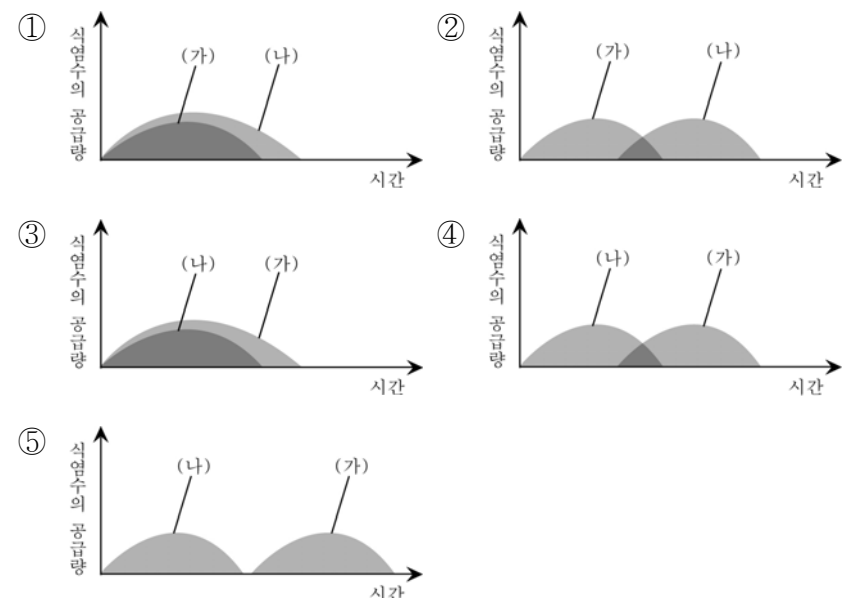
2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녹이 슬면서 열이 발생한다.
- ② ㉠의 산화는 부직포 구멍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 ③ ㉡는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철가루에 녹이 스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
- ⑤ ㉣과 ㉤은 손난로의 지속적인 발열과 관련이 있다.

29. ㉠에 함유된 식염수가 철가루와 결합하는 양상을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톱밥에서 나오는 식염수  
(나) : 버미큘라이트에서 나오는 식염수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왕조 시대에 있어서 역대 왕들의 원년을 기산(起算)하는 방법을 칭원법(稱元法) 혹은 기년법(紀年法)이라 한다. 여기에는 즉위(即位)칭원법과 ㉠ 유년(踰年)칭원법이 있다. 즉, 왕이 죽고 다음 임금이 이어받을 때 한 해가 다 간 12월 31일이면 문제가 전혀 생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하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즉위하는 임금의 해로 보느냐, 아니면 전왕의 해로 보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전왕의 해로 인정할 경우, 승계하는 이듬해 1월부터 원년이 된다. 그러나 즉위하는 임금의 해로 볼 경우, 즉위하는 그 해를 바로 원년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표기 방법을 기년법이라 하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삼국사기』 권1 남해차차웅 조에 보면, “임금이 즉위하여 해를 넘겨서 원년이라 칭하는 것은 그 법이 『춘추』에 상세한 것으로, 이는 선왕이 고치지 못할 법전이라.”라고 했다. 따라서 유년칭원법이 동양 역사에 있어서 전형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삼국사기』의 연표는 즉위 초년을 원년으로 하여 죽은 해까지를 재위 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를 흥년(薨年)칭원법이라 하기도 한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즉위년 초년을 원년으로 하여 죽은 해 전년까지를 재위 기간으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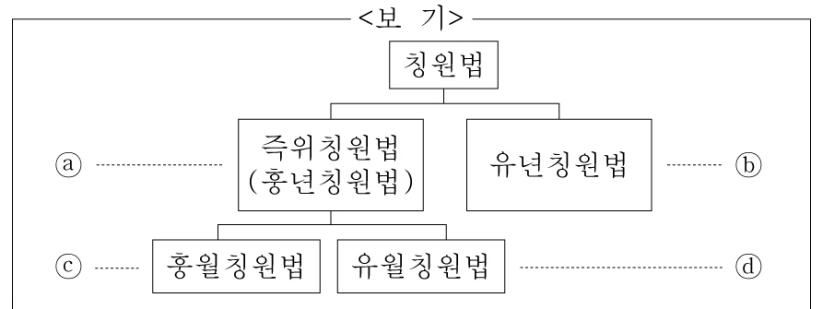
흥년칭원법은 전왕의 말년과 신왕의 원년이 중복되는 불편이 있어, 일자를 정하여 전왕이 죽은 달 내에 신왕의 원년을 정하는 흥월칭원법과, 달로 구분하여 전왕이 죽은 다음 달부터 신왕의 원년으로 ㉡ 치는 유월칭원법으로 나누기도 한다. 삼국시대에는 보통 죽은 다음 달부터 신왕의 원년으로 하는 유월칭원을 했다. 따라서 흥월칭원이나 유월칭원 모두 크게 보면 즉위칭원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고려시대에도 실제로 사용하던 기년법은 임금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하는 즉위칭원법이었다. 이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금석문이나 기타 기록물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초기 『고려사』가 편찬되면서 즉위한 다음 해를 원년으로 하는 유년칭원법으로 편찬했다. 또 조선 초기에 편찬된 『동국통감』이나 후기에 편찬된 『동사강목』 등도 유년칭원법을 사용하여 연대를 계산했던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앞세워 전왕의 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30. 조선 초기에 ㉠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 기록의 용이성과 편의를 중시했기 때문에
- ② 선왕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는 유교적 사상 때문에
- ③ 왕이 실제로 즉위한 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 ④ 전왕과 신왕의 재위 기간이 중복되는 불편함 때문에
- ⑤ 재위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31 ~ 32] <보기>는 역대 왕들의 원년을 기산하는 방법을 구조화한 것이다. 31번과 32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삼국유사』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
- ② ㉠과 ㉡는 즉위 원년 시점에 따라서 구분된다.
- ③ ㉡는 동양 역사에 있어서 전형적인 기산법이다.
- ④ ㉠과 ㉡의 구분은 왕의 죽은 달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은 ㉡와 달리 전왕이 죽은 다음 달이 신왕의 원년이다.

32. <보기>를 다음 연표에 적용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연대	고구려	백제	신라
B.C. (기원 전)	1대 동명왕 B.C.37년 즉위	1대 온조왕 B.C.18년 즉위	1대 혁거세 B.C.57년 즉위
	2대 유리왕 B.C.19년 즉위		2대 남해차차웅 A.D.4년 즉위
	A.D. (기원 후)		3대 대무신왕 A.D.18년 즉위
		2대 다루왕 A.D.28년 즉위	

- ① ㉠에 따르면 유리왕의 즉위 원년은 기원 전 20년이다.
- ② ㉠에 따르면 온조왕의 즉위 원년은 기원 전 17년이다.
- ③ ㉡에 따르면 대무신왕의 즉위 원년은 서기 18년이다.
- ④ ㉠에 따르면 유리이사금의 즉위 원년은 서기 25년이다.
- ⑤ ㉡에 따르면 다루왕의 즉위 원년은 서기 28년이다.

33.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1점]

- ① 실전이라고 치고 미리 연습을 해 보아라.
- ② 새들이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날아갔다.
- ③ 아들은 대학 입학시험을 치러 서울에 갔다.
- ④ 아무리 잘못해도 아이의 머리는 치지 마라.
- 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73. 사무실 옆, 테이블 - 낮**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현우.

잠시 후 종이컵 두 개와 소주 텃병, 김치 한 종이를 가져오는 용석 아버지.

**용석 부:** 저 안에 들어갈 때 말야. 인차를 타고 들어가거든? 저거 보이지 노란색 차.

저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은 30세 때는 30키로, 40에는 40키로, 50에는 50키로로 간다구.

용석이 그 놈, 지금 어릴 때 저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었나부네 싶으면 늦은 거 아닙니까?

**현우:** 네..... 근데 용석이는 소질이 있습니다.

**용석 부:** 소질..... 나도 있었지.

나도 안 해 본 거 없어요. 용석이가 얘기 합디까?

나도 연주 생활을 좀 해봤어. 부산에서.....

악기라고 잡아본 건 밤무대 몇 년 해본 게 다지만.....

그래서 내 좀 알아요. 음악이란 거..... 좋지.....

술에 취해 가지구 집에 들어와서 용석 에미한테 나팔을 불어 주면 술주정을 집에까지 와서 하냐고 하면서도 좋아했지.

글쎄 그 재미로 나 같은 놈한테 불어살았는지도 모르지만.....

호강 한번 못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저거 하나 낳고 죽었어.

‘부’짜가 들어가는 직업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닌 거예요.

과출부... 청소부... 잡부... 광부!

용석이 녀석은 ‘사’짜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하고 싶어요.

검사... 의사... 박사... 안 되면 최소한 장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요. 장사!

**현우:** 악사.....

**용석 부:** (현우를 찌리며) 내가 두려운 게 뭘지 아쇼?

저 놈이 클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거요. 저 놈 클 때까지는 옆에 있어줘야지. 그게 내 지금 하나 남은 바람이요.

그래도 이런 아버지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테니까.

**현우:** 아이의 꿈을 꺾으시면 꼭 그렇지도 않죠.....

**용석 부:** 꿈?..... 선생님은 꿈이 뭐니까?

**현우:** 예?

**용석 부:** 하긴, 선생님은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곱게 자라면서 꿈을 이룬 거겠지.

우리 같은 놈들은 꿈도 가려서 꺾어야지. 나도 꿈이 있었지.

막장 인생이 내 꿈은 아니었거든.

(꿈을 꾸는 눈빛으로 소주를 마시고) 꿈꾼다고 다 이루어집디까?

자식 생각 부모보다 더 하는 사람 있습디까?

우리 애는 보내지 않을 테니 그리 아쇼.

내 미안해서 그러니, 이거나 한잔 더 하구 갑시다.

**현우:** .....

(중략)

**S# 78. 풍경들 - 밤-낮**

아이들 집 곳곳의 풍경.

각자 집에서 연습을 하는 아이들.

제 악기가 들어 갈 선율에 그 악기를 연습하는 아이들이 보이고.

㉠ 심벌즈 대신 냄비 뚜껑을 들고 부딪쳐 보는 심벌즈.

북 대신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두드려 보는 북 소년.

관악실에서 혼자 색소폰을 불고 있는 용석.....

별이 투명하게 맑은 밤하늘에서,

지상에 내린 어둠을 밝히는 작은 가로등 불빛들로.

그리고 지하 갱도를 밝히며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 광부들의 헤드램프의 불빛들이 이어진다.

㉡ 갱도 안 좁은 휴게실에서도 검은 찰을 하고는 반찬을 나눠 먹으며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 하얗게 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상으로 나갈 채비를 하면서 인사하는 광부들이 인차 주변으로 모여 든다. 노란색 인차가 덜컥 덜컥 출발하고.....

아이들의 발걸음. 눈에 푹푹 빠지고 자빠지고.....

그 사이사이 현우와 용석의 대화.

“내 말대로 하자.”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을까요.....”

“아버지한테 좀 맞으면 어때..... 설마 아버지가 널 죽이기가 하겠냐?”

**S# 79. 갱도 - 낮 (비)**

광부들을 싣고 나오는 노란색 인차.

주호도 보이고 용석이 아버지도 보인다.

하얀 입김들을 쏘아 내는 사람들.

멀리 어둠 끝에 지상으로 통하는 작은 빛줄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점점 다가오는 빛줄기.

그 빛을 타고 관악 연주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뭐여? 뭘 소리여?”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

인차를 타고 밖으로 나와 보면,

갱도 중앙 광장에서 아이들이 연주를 하고 있다.

㉢ 아이들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중앙 갱.

어떤 아버지들은 잠시 보다가 자기 갈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버지들은 모자를 벗고 아이들의 음악을 끝까지 들을 채비를 하기도 한다.

㉣ 연주하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면면... 조금 슬픈 듯 서정적인 음악.

현우의 지휘도 어느 때보다 힘차고, 심벌즈도 박자를 제대로 찾는다.

하늘에서 검은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연주를 보던 광부들의 얼굴에도 검은 비가 떨어지고,

묵묵히 아이들의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

사무실에서도 탈의실에서도 문을 열고 모두 모두 아이들의 음악을 듣고 있다.

㉤ 용석이를 보고 있는 용석 아버지.

용석이도 힘차게 연주를 하며 아버지를 보고 있다.

- 류장하 외, 「꽃피는 봄이 오면」 -

34.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추리를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군.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군.
- ③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 ④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말과 행동을 달리 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군.

35. 위 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줄거리 : 현우는 돈을 위해 음악을 하면 안 된다고 믿는, 자존심 있는 트럼펫 연주자다. 현실의 벽에 부딪쳐 떠나보낸 옛 연인 연희가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던 날, 현우는 강원도 탄광촌에 있는 중학교 관악부 교사 자리에 지원한다.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는 악기를 들고 모여 있는 아이들. 현우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할머니와 살고 있는 재일, 케니 지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는 용석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눈이 맑은 마을 악사 수연도 조심스레 현우의 마음을 보듬어 준다. 이 속에서 현우는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낀다.

○ 제작 노트 : [가]

- ① 꽃 피는 봄이 오기까지 상처 입은 현우가 견뎌야 하는 시간을 겨울 풍경에 담을 것이다.
- ② 강원도 탄광촌의 쓸쓸한 풍경을 정감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영상을 보여줄 것이다.
- ③ 현우와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려내어 서로가 소통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낼 것이다.
- ④ 현우와 관악부 아이들의 연주 음악을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⑤ 어린 나이에 꿈을 접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초라한 현우의 모습과 중첩시켜 냉정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36. 다음을 참고하여 ㉠~㉣의 촬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시나리오 용어

- 디졸브 [dissolve] :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차로 나타나는 장면 전환 기법.
- 페이드 아웃 [fade out] : 영상이 천천히 어두워져서 암전 상태로 되게 하는 기법.
- 롱 쇼트 [long shot] : 카메라를 피사체로부터 멀리 하여 전경을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촬영 방법.
- 인서트 [insert] :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 또는 삽입하는 것.
- 클로즈업 [close-up] :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해 찍은 장면.

- ① ㉠ : 디졸브 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자.
- ② ㉡ : 페이드 아웃 기법을 활용하여 대사 처리와 시간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자.
- ③ ㉢ : 롱 쇼트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연주 모습을 한눈에 포착하자.
- ④ ㉣ : 아이들 하나하나를 클로즈업한 장면을 인서트 기법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자.
- ⑤ ㉤ :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하여 용석과 용석 아버지가 서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자.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08년 원각사라는 서양식 극장이 국내에 처음 세워진 이후 1962년 국립무용단의 결성과 함께 한국의 전통 춤사위와 소재에 입각한 한국 극무용이 만들어질 당시의 한국 무용계에는 새로운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개인 안무자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사실적이고 표현적인 동작으로 의미와 볼거리를 창조하고자 한 신무용의 창작 구조는 근본적으로 서양 예술 춤의 정신과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춤의 정신과 존재 방식, 의사소통 구조를 포기한 것이었다.

개인주의에 입각한 창조성과 표현성 그리고 기교를 중시하는 스펙터클한 신무용적 특성은 20세기 초의 서양 근대 춤인 현대 춤과 발레의 모습과 유사하였다. ㉠ 서구 예술 춤의 양식을 따르면서 ㉡ 전통 한국 춤이 가졌던 가(歌) 중심의 집단적 창작 방식이나 공연 형식을 잃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객과 공연자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방향의 상호주의 원칙의 커뮤니케이션 성격도 사라졌다. 대신 창작과 공연에서 개인주의 정신이 자리 잡고 무대에서 객석으로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이야기 방향이 형성되었다. 뜰이나 마을 공터에서 추던 춤이 객석과 분리되어 조명을 받게 되면서 일상성을 상실하게 되고 극장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가상과 환상의 요소가 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용수 역시 현실의 고리를 끊고 완전히 무대 위의 존재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서양 춤에서 집중적인 주목의 대상이었던 젊고 유연한 무용수의 기교와 미소를 신무용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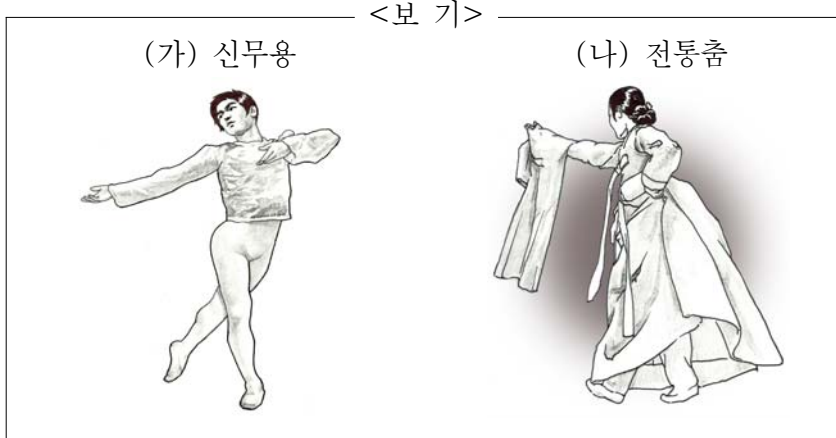
전통 한국 춤에서 본질과는 무관한 수단으로 생각되어 경시받았던 ㉢ 춤의 매체인 기교나 ㉣ 몸은 신무용기에 이르러 절대적인 주목과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한다. 기존의 스텝들은 좀 더 정교해지고 동작의 선 역시 한층 깔끔하고 분명하게 다듬어졌으며 템포가 더 빨라지면서 다양한 대형의 변화가 들어오고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현란한 볼거리가 신무용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이렇듯 동작의 선이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춤을 위해 의상 역시 바뀌었다.

전통 한국 춤의 의상은 폭이 넓고 느슨하여 몸을 가리는 데 그 특색이 있었다. 이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천박하거나 비도덕적이라 생각한 윤리 의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복식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인 겸손함과 정숙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복식은 몸과 옷 사이에 공간적 여백을 두어 개인적인 체취나 몸의 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중간 지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옷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체 실루엣보다 옷의 전체적인 형태가 우선이었지만 신무용의 의상은 신체의 실루엣이 뚜렷하게 드러나게끔 변화하였다.

3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서양 춤의 도입으로 창조성과 표현성이 중시되었다.
- ② 서양식 극장의 건립으로 춤의 일상성이 확보되었다.
- ③ 춤꾼과 관객이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춤이 등장하였다.
- ④ 예술 창작 패러다임의 변화로 춤의 창작 방식이 바뀌었다.
- ⑤ 전통춤의 의상에는 당시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3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했을 때,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은 (나)의 영향을 받았군.
- ② (가)와 (나)의 춤사위로 보아 추구하는 정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동작의 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상에 변화를 주었군.
- ④ (나)의 기교를 모방하여 (가)는 더욱 화려하고 현란한 볼거리를 중시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의상의 전체적 형태를 우선시했군.

39. ㉠, ㉡에 나타나는 **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명사의 강연이 끝난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과 같군.
- ② 두 명의 학생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대화를 하는 것은 ㉠과 같군.
- ③ 군수가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과 같군.
- ④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TV 방송에서 자막 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과 같군.
- ⑤ 학교 공개의 날에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과 같군.

40. ㉠ : ㉡의 의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가수 : 음악
- ② 문학 : 언어
- ③ 투수 : 포수
- ④ 병원 : 의사
- ⑤ 작품 : 독자

[41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른 아침,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발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어느 날 여인과 여인의 뒤에서 눈꽃을 그리는 어린 딸 혜자를 발견한다. 나는 주인집 할머니를 통해 여인이 결핵 말기의 정신질환자이며 허름한 판잣집에서 시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이른 아침 성에 낀 내 방 창문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혜자 어머니와 그 뒤를 서성이는 혜자를 몇 번이나 보게 된다.

여인은 “안녕하세요!”를 되뇌며 간혹 좁은 거리를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 그럴 때면 혜자는 여인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얼굴을 떨구고 있었는데 혜자의 눈길은 신통스럽게도 여인이 밟고 지나간 눈발에만 못 박혀 있을 뿐 다른 데를 보진 않던 것이다.

나는 여인의 해들거리는 웃음과 그 웃음 뒤에 금세 글썽이는 크고 맑은 눈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혜자의 그 근심이 그려지는 눈길을 정탐하면서, ㉡ 새벽같이 새기던 눈발 위의 내 발자국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내 크고 넓은 발자국보다는 여인의 걸음을 따르며 새겨지는 그 양증맞은 눈꽃들이 더 좋아졌다고 나 할까.

혜자는 여인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대개 눈발 흩뿌리는 하늘 속이나 아니면 솔잎 새를 깡충대는 갓새들을 올려다보며 가쁜 입김을 푸우푸우 뿜어대곤 했다.

그럴 때면 내가 물었다.

“눈꽃은 내가 새기는 거지?”

“.....몰라요.....”

“눈꽃은 왜 새기니?”

“.....그냥요.....”

혜자의 대답은 언제나 “몰라요” “그냥요”였다.

나는 바보스럽게 웃으며 내 나름대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그 궁금증이란, 혜자는 왜 여인의 뒤만 바짝바짝 따르며 그 같은 눈꽃들을 새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눈꽃들의 한가운데서 피고 있는 노랑색 꽃술이던 거였다. 꽃잎이야 발로 새긴다고 치고 그 노랑색 물감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눈꽃의 한가운데다가 색을 들이는 것인가. 그런 짓은 혜자가 스스로 하는 짓인가 아니면 여인이 시켜서 하는 짓일까.

나는 이런 궁금증을 밝혀내 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편이었으나 혜자의 손에는 물감이 들려 있어 본 적이 없었고 그 눈꽃은 여인이 다녀간 뒤면 으레 대어섯 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것이었다. 양증맞도록 귀여운 작은 발자국 꽃잎을 달고—

(중략)

젓빛 하늘은 낮게 우중충대며 함박눈을 날리우고 있었고 찢긴 얼음결 속의 줄줄대는 개울물 소리를 감추고 앓은 왕돌더미 위로 그 함박눈들이 소복이 쌓여 가고 있었다.

나는 왕돌 틈새의 얼음결 속으로 사그라드는 눈송이들에게 눈길을 던진 채 이슬을 털어내는 장끼처럼 부르르 몸을 떨었다. 막 후련한 소변을 보고난 참이었다.

나의 눈길이 눈발 속에 갇힌 개울 끝썸의 혜자네 판잣집계를 내려다보며 허망하게 떠 있었을 때, 마침 혜자가 그 눈발 속을 질러 깡충깡충 뛰어오고 있었다.

혜자는 내 앞에 이르러 잠시 하늘 속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나서 ㉢ 내 발치 밑의 눈발 위에다 눈길을 떨궜다.

“어디 아팠니?”

“.....”  
 “㉠ 사흘 동안 꼼짝 않고 뭘 했니?”  
 혜자는 나의 말에는 대꾸도 않고 여전히 내 발치 밑에다만 눈길을 모으고 있었다. 혜자는 뭔가 한참 골똘하게 생각하는 눈치더니 이내 나의 오줌발이 뚫어 놓은 노랑색 구멍에서부터 앙증맞도록 작고 귀여운 고무신 자국을 내는 거였다. 그리고 나선 그 첫 번째 고무신 자국에서부터 차례로 결이 영근 꽃잎을 새겨 가고 있었다.  
 혜자는 다소 맥이 빠진 듯한,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더 측은해 보이는 그런 얼굴로. 전자시계의 초침처럼 천천히 뻗어오르며 정성껏 꽃잎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혜자의 발끝에서 피어나고 있는 노랑색 꽃술의 눈꽃이 마지막 꽃잎을 채웠을 때였다. 나는 혜자의 그런 모습을 예사스럽게 보아 넘기다 말고 문득 모가지계에다 차디찬 소름을 엮었다.  
 “.....무슨 꽃이지?”  
 “몰라요!”  
 나는 혜자의 작은 고무신이 찍어대는, 그 애의 작은 고무신 코에서부터 피어나고 있는 이름 모를 꽃잎들을 보면서부터 한 가지 섬뜩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던 것이었다. 그 기억이 미처 여물기도 전에 혜자가 낮게 말했던 것이다.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요, 지금 막 죽었대요!”  
 “.....?”  
 나는 혜자의 어긋죽지를 와락 싸안았다. 그리고 ㉡ 눈발 속으로 먼 혜자네 집을 허망하게 바라다 볼 뿐이었다.  
 혜자가 얼굴을 들어 나를 빤히 올려다봤다. 한동안 그러고 있던 혜자가 나의 팔아름을 빠져나가며 시무룩해진 얼굴로 또록 또록 말을 이었다.  
 “나 이제 심심하겠다아..... 엄마 대신 이제 아저씨가 오줌 싸 줘요. 내가 꽃 만들어줄게요. ....우리 엄마는요, 조금만 걸어두요, 힘이 없어서 오줌을 막 썩대요. ....그래서 할머니 가요, 날 보고요, 엄마가 아저씨 집에 갈 때는 꼭 따라다니면서요, 엄마가 오줌 누고 나면 표 안 나게요, 눈꽃을 만들었어요. ....인제 아저씨가 오줌 싸줘요, 네에?”  
 “.....”  
 “진짜예요. 내가 눈꽃 만들어 줄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아나 봐, 피—”  
 혜자는 몇 번 내 얼굴을 흘끔거리더니 이내 바지 주머니에다 두 손을 찔렀다. 그리고 나서 놀이터에 놀러가는 아이처럼 혼연스럽게 짱충대며 집을 향해 갔다.  
 내 눈 안으로 드는 것들은, 내 사글셋방 쪽에서부터 개울까지 나란히 패인 내 긴 발자국들과 잣새들의 푸득거림에 흠날리는 눈가루, 그리고 그 잣새들을 날려 보내고 난 영근 솔잎들의 하들하들 떨어대는 연한 미동들뿐이었다.  
 - 천승세, 「혜자의 눈꽃」 -

4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품 속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여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4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혜자의 관심이 엄마가 지나간 눈발에 있음을 의미한다.
- ② ㉠: 내 관심이 혜자가 그린 눈꽃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 ③ ㉡: 수줍음을 많이 타는 혜자의 순수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④ ㉡: 혜자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⑤ ㉡: 혜자 엄마의 죽음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4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서로 대립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 ② [A]와 [B] 모두 추측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③ [A]는 사실적 행동을, [B]는 신비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④ [B]는 [A]에서 생겨난 의문이 풀리는 계기가 된다.
- ⑤ [B]는 [A]에 비해 상황이 급박하여 긴장감이 높아진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혜자라는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그리는 눈꽃을 통해 생의 비극과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나’는 그저 어린아이가 그리는 눈꽃을 아름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흰 눈 위에서 빛나던 노랑색 꽃술은 병든 여인이 걸을 때마다 힘에 부쳐 내지른 오줌이며, 여인의 처절한 고통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오줌에 그린 혜자의 눈꽃은 여인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할머니가 시켜서 그린 것이다. 여인의 고통은 이렇게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게 되며 그 여인의 고뇌는 꽃으로만 표현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정신질환자인 여인이 죽음 앞에서도 이성(異性)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행위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그것에 접근하고 있다.

- ① 눈꽃의 노랑 꽃술에서 혜자 엄마가 지닌 삶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 ② 혜자 엄마가 나를 자주 찾아오는 것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③ 눈꽃을 그리는 혜자의 행동을 통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④ 혜자에게 눈꽃을 그리게 한 것은 머느리를 배려하는 할머니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 ⑤ 혜자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비참한 현실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45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북미점자위원회는 점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점자는 하나의 점칸(braille cell) 안에 가로 2개, 세로 3개로 배열된 6개의 볼록한 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점형을 사용하여 촉각으로 읽고 쓰는 체계이다.” 이 6개의 점은 위치에 따라 왼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각각 4점, 5점, 6점으로 정의하여 부르고 있다.



6점 구성

(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6점식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파리맹학교의 학생으로서 12점 점자를 접하게 된다. 그는 12점 점자가 위아래로 너무 길게 배열되어 있어 빨리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세로를 반으로 줄여 가로 2점, 세로 3점의 6점식 점자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다.

(다) 점자를 쓸 때는 점자판, 점자 타자기,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등을 주로 사용한다. 점자판은 점자 체계가 고안될 때 함께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필기도구이다. 점자판은 점판(wooden board), 점판(slate), 점필(stylus)로 구성되며, 점자지는 보통 종이보다 약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다.

(라) 점자는 일반 글자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한 칸에 들어 있는 6개의 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기호 체계이다. 따라서 한글 점자를 이해하려면 첫소리 자음, 모음, 받침에 해당하는 각각의 점자 기호를 익히고, 그것을 조합해야 점자로 쓰인 한글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라는 낱말을 점자로 표기하면 ‘첫소리 ㅈ, 모음 ㅓ, 받침 ㄱ, 첫소리 ㄱ, 모음 ㅓ’의 5칸이 소요되는 것이다.

(마) 한글 점자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글 점자의 구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 자음자 14개가 첫소리 자리에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
첫소리 글자	⠠	⠡	⠢	⠣	⠤	⠥	⠦	⠦	⠨	⠩	⠪	⠫	⠬	⠭	⠮

위의 표에 나타난 것을 점의 명칭을 사용하여 말하면, 첫소리 ㄱ은 4점, ㄴ은 1-4점(일사점이라고 말한다), ㄷ은 2-4점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첫소리 ㅇ은 소릿값 없이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어서 점자에서는 표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45. (가) ~ (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점자의 개념
- ② (나): 6점식 점자의 발명 계기
- ③ (다): 점자판의 구성 원리
- ④ (라): 한글 점자 표기의 특징
- ⑤ (마): 한글 자음의 첫소리 표기 방식

46. (라)와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점]

한글 표기의 특징은 음운을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은 ‘ㄱ, ㅏ, ㅇ’의 세 음운을 음절 단위로 모아 ‘강’이라고 표기한다. 이에 비해 영어는 ‘river’처럼 음운을 한 줄로 나열하여 풀어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① 한글 점자는 음운 단위로 끊어 의미를 파악한다.
- ② 한글 점자 표기는 한글 표기와 달리 음절을 풀어쓴다.
- ③ 한글 점자는 한글의 모양을 본떠 고안한 기호 체계이다.
- ④ 한글 점자 표기는 영어 표기와 달리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 ⑤ 한글 점자·한글·영어 표기는 음절 표기 방법이 동일하다.

47. (마)와 <보기>를 바탕으로 ‘아리랑’을 점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보 기>

※ 받침 자음: 기본 자음자 14개가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
받침 글자	⠠	⠡	⠢	⠣	⠤	⠥	⠦	⠦	⠨	⠩	⠪	⠫	⠬	⠭	⠮

※ 모음: 10개의 기본 모음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R. Giffen)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감자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반응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던 감자의 경우에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역설적인 현상을 기펜의 역설(Giffen's paradox)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선 당시의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감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무척 가난했기 때문에 빵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감자를 특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할 수 없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이는 감자가 열등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자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 보자.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살림살이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평소 먹고 싶던 빵을 조금이나마 사먹을 수 있게 된다. 빵으로 배를 불린 사람들은 이제 감자를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면, 감자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그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엔겔(C. Engel)이 지적했듯, 가난한 사람일수록 식료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더 큰 법이다. 당시의 아일랜드 사람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거의 감자로 살다시피 했을 것이고, 따라서 소득의 대부분을 감자 사는 데 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소득효과가 특히 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소득효과가 아주 큰 경우에만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48.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용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④ 특정한 현상이 끼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 ⑤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49. 위 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 ① 기펜의 역설에 대한 당시 경제학자의 반응은 어떠했나?
- ② 기펜의 역설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 ③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감자 가격의 하락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 ⑤ 아일랜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5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수 :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학생 : 선생님, 오늘 배운 아일랜드의 예와 비슷한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 :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우리도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쌀을 살 돈이 없어 보리밥을 먹는 가정이 무척 많았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보리밥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먹기 싫은 데도 돈이 없어 억지로 보리밥을 먹어야 하는 처지였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흰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보리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일랜드 사람들의 감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① 예전에 쌀은 열등재에 해당하는 식료품이었다.
- ② 예전에 보리 가격이 하락했다면 쌀밥을 더 먹었을 것이다.
- ③ 예전에 보리는 소득효과가 비교적 작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요즘의 보리는 아일랜드의 감자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 ⑤ 요즘의 보리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 수요 법칙과 일치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